

《主 題》

국내 BBS 이용실태 및 건전 육성방안

정 인 식

((주)테이콤 부가통신사업본부)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BBS란 무엇인가?
- III. 국내 및 해외 BBS 현황
- IV. 정보화 사회와 BBS

- V. BBS의 분류
- VI. BBS의 운영환경과 운영자의 자세
- VII.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 VIII. 마치며

I. 들어가며

“도대체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 걸까?”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 문을 나서던 영식은 혼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칠인인줄 아나? 교수님은 도대체 그 많은 분량을 우리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거야? 안그러냐 진수야?”

“쩍, 사실 나도 걱정이야구. 평소에 조금씩은 봐왔는데 이거야 원 몇십페이지도 아니고 삼백 페이지나 되니...”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 어린양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시나이까?”

영식의 너스레에 잠시 시험걱정을 잊고 진수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녀저나 삼백 페이지나 되는 양을 어떻게 공부할 한다? 기간이라도 충분하면 어떻게 해볼텐데...’

계속 떠들어대는 영식을 옆에두고 진수는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 이공리저공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진수가 마침내

“그래! 왜 내가 그걸 몰랐지?”

“어? 진수야 너 왜 그러니? 드디어 시험 때문에 이상해졌구나. 예구 불쌍한 것...”

“영식아, 너 석기형이 지난번 시험에서 만점에 가

까운 점수를 받았던 것 기억하지?”

“그래, 맞아! 석기형 한테 문제를 찍어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 그래, 얼른 우리의 구세주 석기형을 찾아보자구!”

한참동안 구세주를 찾아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던 영식과 진수는 허탈한 심정으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으... 도대체 어딜간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투덜대기 잘하는 영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구구 다리야. 진수야 이제 어떡하냐? 이대로 시험을 망치고 마는거냐?”

“글쎄,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잖아. 이따 다시한번 찾아보던지 해야지 뭐...”

“관둬라 관둬. 지금 없는 사람이 어디서 ‘나 여기있소’하고 나타나준단?”

“하긴...”

이렇게 한참을 침묵속에 하늘과 땅만 쳐다보던 영식과 진수는 동시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벤치에서 벌떡일어선 둘은 PC가 설치되어 있는 써클실을 향해 마구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써클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PC 앞에 앉아 모뎀을 통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있다 있어. 핵심만 간추려 놓은게 고스란히 있구나.”

“진작에 석기형이 BBS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더라면 그런 수고는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말이야.”

영식과 진수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고는 신이 나서 자료를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젊은 석기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 BBS에 접속을 하여 그동안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모아 놓은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세주는 석기형이 아니라 이 사실 BBS 구만.”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녀석한테 고맙다는 표시라도 해야되지 않겠어?”

이 말을 끝내자마자 영식은 먼지가 뽀얗게 끼인 모니터에 입술을 대고 뽀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 영식이 컴퓨터는 오바이트 안하냐?”

영식과 진수는 만약 BBS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또 석기형을 찾아 캠퍼스안을 헤매고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영식과 진수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준 BBS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BBS의 정의와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II. BBS란 무엇인가?

BBS라는 것은 Bulletin Board System의 약자이다. 만 그대로 해석한다면 ‘전자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일반 게시판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인데 반해 전자 게시판은 PC와 모뎀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부형의 Nwtwork 상에 구성된 게시판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전자게시판, 즉 BBS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고 있다시피 게시판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BBS 역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만 그 이용자가 일반인이 아닌 PC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자게시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PC가 게시판의 역할을 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BBS가 PC와 모뎀이라는 매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부형의 게시판이기 때문이다.

실제 운영중인 BBS들을 살펴보면 크게 대형 BBS와 소형 BBS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언급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노드(접속 전

화번호) 수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대형 BBS의 경우에는 수십개에서 수천개에 이르는 노드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교환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 소형 BBS는 1개에서 많으면 5개 내외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특정 지역에 한해 서비스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원수의 차이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 BBS쪽의 회원이 대부분 많다. 다음으로 BBS 운영자에 따른 구분인데 대형 BBS의 경우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형 BBS는 개인이 혼자 또는 두세명이 함께 운영하게 된다. 특히 소형 BBS는 개인이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BBS라고 주로 지칭된다. 이러한 기준 외에 운영상비에 따른 구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형 BBS는 486이상의 PC나 워크스테이션 이상을 사용하며 소형 BBS는 대부분 386 정도의 PC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 이들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표 1)

이상과 같이 대형 BBS와 소형 BBS를 구분지어 보았지만 사실 어느 한가지 기준으로 BBS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회원수로 볼때에는 분명 대형이지만 노드라던가 장비면에서는 소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준을 적용할 때 한가지 기준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만 보다 실용력있는 구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표 1. 대형 BBS와 소형 BBS의 구분

	대형 BBS	소형 BBS
회 원 수	10,000 명 이상	10,000 명 미만
노 드 수	100 회선 이상	100 회선 미만
운영상비	워크스테이션 급 이상	일반 PC 급
운 영 자	단체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시 타	대부분 유료 서비스 전국적인 Network를 가지고 있음	대부분 무료 서비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제 앞으로 전개해나갈 내용은 대형 BBS 보다는 소형 BBS에 중점을 두어 서술해 나가고자 하며 이후 BBS라 칭하는 것은 사실 BBS를 뜻함을 미리 밝혀둔다. 일반적인 형태의 사실 BBS 메뉴를 아래 그림 (1)로 나타내어 보았다. 사실 BBS는 대규모의 BBS에 비해 그 메뉴 구성이 야기자기하하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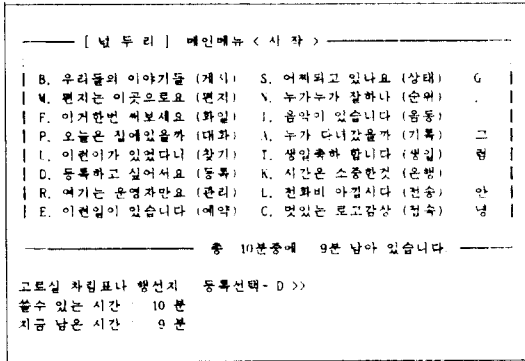


그림 1. BBS 주메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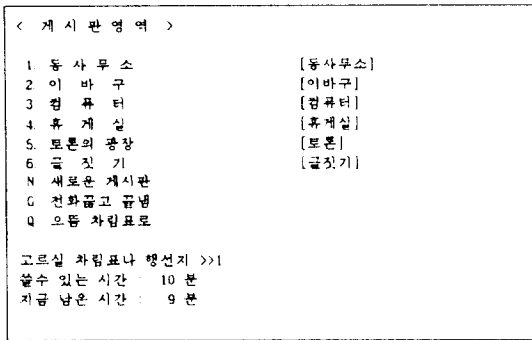


그림 2. BBS 게시판 영역 화면

이 처럼 구성된 BBS는 이용자가 직접 가서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PC와 모뎀을 통해 연결된 통신망(일반적으로 공중통신망 - PSTN, 즉 전화선이라 할 수 있다.)을 통해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된다. 그 구성을 간략하게 표현해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형태가 된다. 이런 BBS가 보급되게 되면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집이나 근무처 등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BBS는 정보화 사회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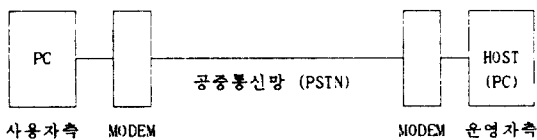


그림 3. BBS 접속 구성도

III. 국내 및 해외 BBS 현황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이용하다보면 BBS에 관한 많은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알고 있다시피 이 두 서비스는 아예 BBS의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게시판에는 BBS의 광고가 하루에도 20여개 이상씩 등록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신설되는 BBS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많은 BBS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반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BBS가 만들어진다면 당장 우리나라는 BBS 포화상태가 되어야 할텐데 아직 그러한 실정이 아닌 것은 만들어지는 만큼 많은 숫자의 BBS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까지 탄생한 BBS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 명멸을 거듭하는만큼 그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2000국 정도가 되고 현재 활동중인 것은 800여국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적으로 본다면 아직 국내 BBS 현황은 언론기관이나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또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지어질 성격의 작업도 아닐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산하 '한국 PC통신 협의회'가 발족되어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언급한 현재 활동중인 BBS의 수는 천리안 내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 PC통신 협의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수이다. 따라서 실제 활동중인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BBS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한 'BBS 전화번호부'라는 책이 두곳에서 연 2회씩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한국통신에 해당하는 '일본전신전화공사 (NTT)'에서 발간되는 책자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신문사에 해당하는 '전파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책자이다. NTT에서 발간하는 책자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전화번호부를 발행, 배포하듯이 이 책도 수도권 편 그리고 각 지방별 편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전자신문사에 발간하는 책자는 작은 글씨체로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 500~600 페이지 분량의 책자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재단법인 등에서 행한 BBS 조사 및 PC통신인들의 의식조사 등에 관한 자료가 많아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BBS가 거의 모두 유명 Network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Network 노드 리스트'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실태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Network에 대해 잠시 언급해본다면 Network는 바로 BBS가 대형의 BBS 보다 훨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외국의 BBS 대부분이 Network를 통해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Network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연결된 회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용 Network, 대학 Network, 연구소 Network, 기업 Network, BBS Network 등, Network 대 Network간의 연결도 잘되어 있어서 정보자원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럼 외국의 대형 Network 가운데 몇가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BBS 운영자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Network는 FidoNet일 것이다. FidoNet은 BBS 전용 Network이나 회선 자체는 일반 전화 회선을 이용하는게 특징이며 지역간 중계는 자원봉사자가 선출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FidoNet과 다른 해외 Network간에는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Network를 경유하여 FidoNet에 연결할 수도 있다. FidoNet의 본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우리 한국은 아시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본에 속해있는 형편으로 아직 한국가로 독립 코드를 부여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아직 국내에는 FidoNet을 관한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기타 유지관리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FidoNet 외에 일반 통신인들에게 잘알려져 있는 Network에는 Internet이 있다. Internet은 세계최대의 Network으로 가입자만 1천만명이나 된다. 따라서 현재 Internet을 이용하는 국내 연구기관도 많고 통신인들 역시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Network이라 하겠다. 이외에는 BITNET, EARN, UUCP, US-ENET, EUNet, RARE 등이 있다.

IV. 정보화 사회와 BBS

요즘 귀 따갑게 들리는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기계에서 전자로 그리고 이제는 정보화로 산업사회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사회의 모든 부분을 정보가 좌우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현재의 빠른 정보화 사회로의 행보는 벌써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형태가 낫설지않게 만들었고 나아가 낫지않은 미래에 정보마인드가 대중화 되어 우리의 생활 구석 구석에 정보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상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모두 PC와 통신망을 통하여 행해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BBS는 미래에나 실감할 수 있는 이런 "정보생활문화"를 그 무엇보다도 앞서 받아들이고 보급해주고 있는 정보문화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BBS에 대하여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대규모의 BBS들은 공개적 활동이므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소규모 BBS들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공개적이고 비안전하다는 편견이 그것이다. 실제로 한 때는 몇몇 BBS 운영자들이 음란물과 불법복제죄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마스크에 보도되었으니 이러한 편견이 생기게 된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대다수의 BBS가 매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BBS 운영자들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BBS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찌되었거나 앞서와 같은 편견이 생기게 된 책임은 구속된 몇몇 BBS 운영자들에게있는 것도 아니며 마스크의 보도를 맹신하는 일반대중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다.

V. BBS의 분류

BBS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운영규모

BBS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운영규모에 따라 대형 BBS와 소형 BBS로 분류할 수 있다. 대형 BBS는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또한 PC보다는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의 호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접속노드 또한 다수의 회선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소형 BBS는 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며 접속을 위한 노드가 1개 회선인 경우가 대부분

이고 주로 PC급의 호스트를 사용한다.

(2) 구현도구에 의한 분류

이는 실제 BBS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호스트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했는가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1) Shell에 의한 구현

BBS의 기본기능을 유닉스의 쉘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것이다. 즉, BBS의 기본 기능인 전자우편, 게시판, 대화 기능 등을 유닉스의 명령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끔 한 것이다.

2) C 프로그래밍에 의한 구현

현재 대부분의 BBS 프로그래밍은 C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C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는 유닉스의 쉘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경우보다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프로그래머의 역량에 따라 기능을 더욱 강력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관리가 어렵고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다.

3) Application을 이용한 구현

이 방법은 BBS 프로그램을 유닉스의 Application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으로 드물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예로 유닉스의 데이터베이스 패키지인 Fox Bas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타 다른 패키지를 이용해서도 구현 가능하다.

(3) 노드에 따른 구분

1) 단일노드

접속포트가 하나 뿐인 BBS로서 전화선 하나와 모뎀 하나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BBS다. 단일노드 BBS인 경우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동시 사용 가능한 인원이 운영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BBS들은 대화실 기능이 비교적 취약하고 게시판이나 자료실, 전자우편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2) 다중노드

접속포트가 여러개인 BBS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수의 회원이 동시에 사용가능하다. 다중노드 BB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와 모뎀이 최대 사용 가능한 사용자 수 만큼 설치되어야 한다. 다중노

드의 BBS 경우에는 대화실, 게시판, 전자우편, 자료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4) 운영시간에 따른 분류

1) 항상 운영 중인 BBS

24시간 동안 늘 접속할 수 있는 BBS를 말한다.

2) 일시적인 운영 중인 BBS

하루 중의 일부 시간에만 접속할 수 있는 BBS.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운영자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의 개인사정이나 방침에 의하여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BBS를 말한다.

VI. BBS의 운영환경과 운영자의 자세

현재 활동 중인 BBS들의 운영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실제 소규모 사설 BBS를 직접 이용해본 이용자가 아니라면 모든 BBS를 대규모의 형태에 기준하여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운영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사설 BBS 운영자들의 60~70% 정도가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PC라는 것이 최신 정보기기인 만큼 PC의 사용계층을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청소년 특유의 순간적 충동에 따른 운영과 그에 따른 기술적 정보의 부재, 윤리적 측면의 미성숙 등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수단으로서의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의 운영면에 있어서는 운영에 따른 경험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용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이 개인적 사정(학업 등)에 따라 야간 시간(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7시 전후)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운영자의 대부분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미성년이기 때문에 BBS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의 BBS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어느정도 선일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통 BBS를 노드 하나로 운영할

경우도 내장형 모뎀 1대와 전화 1회선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30만원에서 40만원 선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매달 전화요금을 별도로 내야한다. 2개 이상의 모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1노드당 외장형 모뎀 1대와 전화선 1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장형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한다. 즉 1노드당 40만원에서 50만원 선 정도의 비용이 개설시에 필요하게 되며 별도의 전화요금이 매월 지출됨은 물론이다. 이외에 기본적인 장비로서 PC와 모니터, 하드디스크 등이 필요한데 이들 장비를 구입할 경우 현재 386을 기준으로 볼때 15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아울러 하드디스크나 백업장치 등은 BBS에 축적되는 정보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것들이므로 이들 장비에 대한 추가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 비용도 추가로 들게 된다.

이 외에 BBS의 운영에 필요한 시간도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현재 많은 운영자들이 본인의 여가시간을 거의 모두 BBS 운영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BBS가 운영되는 시간은 야간시간대이나 모든 기기에 있어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관계로 실제 운영시간 외에도 많은 시간을 화일의 정리 또는 게시물 관리 등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 형편이며 운영시간 도중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하에서 왜 BBS를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첨단 정보사회에 대한 봉사과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래 정보사회는 말로만 다가 오지는 않는 것이다. 국내의 현재 수준의 정보통신화를 가꾸기 위하여 80년대 말부터 많은 수의 BBS들이 정보통신이란 말이 생소한 상태에서 개인의 희생용 감수해 가며 많은 이들에게 BBS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현재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도 많은 사실 BBS들이 정보통신에 공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개중에는 호기심과 일시적 충동으로 BBS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BBS들이 청소년들과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에게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쉬운 사용법으로 인하여 PC를 보다 친숙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실제 BBS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자세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컴퓨터라는 것이 문명의 이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운영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BBS를 운영해 나가느냐는 결국 올바른 BBS 문화가 정착되는가에 귀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BBS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갖추어야할 자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운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용, 성실성, 책임감일 것이다. 운영자로서의 공적인 약속은 절대로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를 우롱하거나 배신해서는 안된다. 운영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 회원의 개인정보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러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는 곧 앞서 언급한 사용자를 배신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BBS는 시한부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영구적 운영이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자 개인 사정이나 감정에 의한 BBS의 철폐 등은 있어서는 안되며, 그저 재미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BBS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성실성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자신의 게시판에 있는 글들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신의 BBS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각 회원들의 동정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의 관리능력 이상의 것들이 요구된다면 운영진의 보장이 뒤따라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Ⅶ.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초석과 같은 존재인 BBS들은 어려운 환경하에서 개인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꾸준히 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미흡한 것이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BBS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현재의 상태로는 더이상 질적 양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사설 BBS를 이용하던 어중생이 상대방의 심한 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과 유란물과 상용프로그램들을 배포한 혐의로 운영자가 구속조치까지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다수 건전한 BBS 운영자들의 사기를 꺾는 악재로 작용했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국내의 BBS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가지로 압축하여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계속 지적되어온 사실로 BBS 운영자의 사회공익윤리에 대한 가치관 부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BBS가 개인의 희생에 의하여 운영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중매체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사회공익윤리에 저촉되는 운영방식은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해야하며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BBS 운영에 따른 법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운영자들이 대부분 사익이 아닌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인 만큼 운영자들의 권리와 운영에 따른 사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PC 통신의 특성상 아마츄어 HAM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아마츄어 법의 전례에 따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셋째로 BBS 관리 방법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BBS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이때마다 처리를 위한 기준안이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가진 운영자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BBS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를 위한 기준안 또는 기본방침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BBS관련 사건 발생시나 후에도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사설 BBS의 사료보존기록 양식과 내용, 보존 기한 등을 정해두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로 대화실의 무절제한 언어 사용과 통신예절 또는 통신문화의 부재현상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들의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운영자의 지도와 운영지침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대화실에서의 언어폭력은 여중생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만큼 통신인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음란자료와 상용자료에 관한 문제는 통신의 특성상 직접 대면이 아니므로 해당자료를 추적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정부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 두어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BBS 운영자들의 단체인 '한국 PC 통신 협회'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BBS 운영 및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BBS가 양성적으로 어떠한 체계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알고 있다시피 현재 국내 BBS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행해진바 없고 단명하고 마는 BBS들이 많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BS가 양성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방편으로 정보윤리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신고의 무제와 같은 장치는 사실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BBS가 양성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우선 첫째로 BBS 운영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한다면 아마츄어 HAM과 유사하게 운영자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자격증 체제하에서 정보통신 기능사가 BBS와 관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여겨진다. 물론 연령제한은 완화하여 미성년이라도 응시가 가능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BBS의 개국을 일시적인 총동에 의하여 개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BBS 운영에 관한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확인하는 의미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일도 가능하므로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이 자격증을 가진 운영자에게 모뎀 및 전화회선 설치비 할인혜택 및 각종 BBS 운영관련 제품할인을 유도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실효를 기둘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전국적인 사설 BBS 운영자들의 조직을 만들어 기술적인 내용의 상호교류 및 BBS의 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한국 PC통신 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조직에서 시급히 행해야 할 과제를 들자면 전국적인 BBS의 파악 및 기술정보 지원, 전국적인 BBS Network 추진 및 BBS 운영자들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본다.

이상의 방안들이 어찌면 아직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것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보사회의 초석이 되는 BBS를 보다 양성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 정보통신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일반 대중사이에 확산되어가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설치된 정보윤리위원회나 한국 PC통신 협회가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면 BBS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입장에서라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Ⅷ. 마치며

지금까지 국내 BBS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견을 적어보았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어떠한 일이던지 그 처음시도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반복되는 개선노력에 의해 사회가 발전되어온 만큼 국내 BBS계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BBS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뿐만 아니라 BBS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통신인이 함께 노력해야할 부분인 것이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비공책으로 현상황을 보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BBS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정 인 식

- (주)데이콤 홍보실장, 정보서비스 부장
- 現 : 무기통신사업본부 서비스운영부장